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건강검진이 7월 2일부터 23일까지 교육연구관에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복부초음파 검사와 종양표지자 검사 지원 대상이 만 40세 이상에서 만 3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종양표지자 검사는 일반검진 혈액검사에 포함돼 시행되며, 복부초음파 검사는 AMIS 3.0 '직원건강관리 예약' 화면에서 사전 예약 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7월 2일 직원이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75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AMC IN(人)sight - 가장 작고 위대한 우주를 지키는 첫 페이지'**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암병원간호2팀 신유나 사원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8월 1일(토)
발표 제779호(2026년 8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김향연(연구지원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신정인(영상의학과)
심순미(간호교육행정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김수연(진단검사의학팀)
양슬기(영상의학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박혜인(암병원간호2팀)
조영민(영상의학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공희정(중앙공급팀)
박청희(소화기내시경팀)
신예나(내과간호1팀)
이다겸(국제교류팀)
조해정(수술간호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77 2026. 7. 15

네이처 인덱스 '연구 선도 의료기관' 국내 1위… 연구 지원 강화

우리 병원이 네이처 인덱스 '2026년 연구 선도 의료기관' 순위에서 국내 1위, 세계 64위에 올랐다. 연구 기여도를 평가하는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약 29% 증가하며 우리 병원의 연구 영향력이 국제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우리 병원은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 심의 체계 간소화, 통합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7월 9일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데이터소위원회(DRB) 의료진이 원스톱 심의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상연구보호센터 박은영 유닛 매니저, 정유삼 IRB위원장, 오정식 데이터융합팀장, 임상연구보호센터 유소영 부교수, 데이터융합팀 최효정 유닛 매니저, 양동현 DRB위원장, 임상연구보호센터 조유라 과장. (관련기사 2면)

03 NEWS 에크모 치료 국내 최다… 중증 심폐부전 치료 선도
09 AMC 광장 견고한 시스템 위에 더해지는 가치
12 헬스에디터 자외선과 점, 그리고 피부암
18 감사우체통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1995년 5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다 06386 **발행인** 박승일 **편집인** 노영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Tel** 1688-7575 **홍보팀** **Tel** 02-3010-3096 **디자인인쇄** 큐라인

연구 기여도 평가한 '점유율' 29% 상승… 연구 경쟁력 입증

"우수 연구성과 창출 위해 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해 나갈 것"

우리 병원은 지속적인 연구 지원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네이처 인덱스 2026 연구 선도 의료기관 순위'에서 국내 의료기관 1위에 선정됐다. 연구 기여도를 나타내는 점유율이 지난해보다 약 29% 증가하며 세계 순위도 13계단 상승했다.

우리 병원이 네이처 인덱스(Nature Index)가 발표한 '2026년 연구 선도 의료기관(Research Leaders: Leading Healthcare Institutions)' 순위에서 국내 1위, 세계 64위를 기록하며 뛰어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네이처 인덱스는 고품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기관별 연구 기여도를 집계하는 연구 경쟁력 지표다. 전 세계 현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싶은 학술지'를 조사하고, 이를 글로벌 연구자 설문으로 검증해 평가 대상 저널을 확정한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란셋(The Lancet), 미국의학협회지(JAMA), 네이처(Nature) 등 178개 최고 권위 학술지가 이에 해당한다. 순위는 단순 논문 수가 아니라 연구 기여도 지표인 '점유율(Share)'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점유율은 논문에 참여한 저자 수와 소속 기관을 반영해 각 기관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연구 참여 비중을 보여준다.

우리 병원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표된 연구성과를 기준으로 점유율 33.4점, 논문 수 11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 77위에서 올해 64위로 13계단 상승했으며, 점유율은 지난해 25.9점보다 약 29% 증가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서 우리 병원의 실질적인 연구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올해부터는 평가 체계도 한층 고도화됐다. 연구 분야를 저널 단위가 아닌 개별 논문 단위로 분류해 논문의 연구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자연과학·보건과학 중심에서 응용과학·사회과학 분야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해 의료 AI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연구 성과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 병원은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의료데이터 원스톱 심의를 위해 임상연구심의위원회(IRB)와 데이터소위원회(DRB) 통합 심의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데이터 활용 안정성과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데이터플랫폼(IDP) 구축에도 본격 착수했다. 또한 ▲국책과제 신청 절차 안내 강화, 사전 검토 기간 단축 등 연구 지원 프로세스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병원의 연구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병원은 전 세계 임상 의사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NEJM에 총 10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국내 의료기관 중 독보적인 기록으로, 세계 유수 병원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수준이다. NEJM은 피인용지수가 84.5로 네이처(56.1)나 사이언스(47.3)보다 높다.

기관명	점유율	국내순위	세계순위
서울아산병원	**33.42**	**1**	**64**
서울대병원	30.86	2	69
삼성서울병원	15.14	3	145
연세의료원	14.52	4	151
고려대의료원	10.1	5	212
서울성모병원	5.02	6	357
국립암센터	4.37	7	391
한림대의료원	3.92	8	420

에크모 치료 국내 최다… 중증 심폐부전 치료 선도

강필제 에크모팀장(오른쪽 두 번째)이 에크모 유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에크모(ECMO, 인공심폐보조장치)는 심폐기능부전 환자의 심장과 폐 역할을 대신해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뒤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걸러낸 후 다시 몸속에 주입하는 장치다. 에크모를 유지하는 동안 의료진은 심부전이나 호흡부전을 일으킨 근본 원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며, 환자 장기가 제 기능을 한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에크모를 안전하게 제거(이탈)한다.

2005년 첫 에크모 운용을 시작한 우리 병원은 지난해 3,000례를 돌파하며 누적 3,123례라는 독보적인 국내 최다 기록을 세웠다. 2019년에는 전문적인 에크모팀을 정식 발족해 중증 심폐부전 치료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 병원의 에크모 이탈 성공률은 65%, 생존 퇴원율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에크모 환자 3명 중 2명이 자발호흡과 자발순환이 회복됐으며 절반 이상이 집으로 건강히 돌아갔다는 의미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환자 장기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에크모는 환자가 뇌사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는 동안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식 교량' 역할을 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에크모 운용의 20%에 해당하는 452례가 이식 대기 환자를 위해 시행됐다.

교량 치료 환자의 실제 이식 시행률은 72%에 달했다. 심장이식 164건과 좌심실보조장치(LVAD) 22례 등 총 186례의 교량 치료가 시행됐고 이식 후 생존 퇴원은 82%를 기록했다. 폐이식 교량 치료는 140례가 시행돼 이식 후 생존 퇴원율 81%를 보였다.

타 병원에 입원 중인 위급 환자를 우리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는 원외 이송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0례의 원외 이송이 진행됐으며 이송된 환자의 에크모 이탈 성공률은 70%, 생존 퇴원율은 59%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외 이송 후 이식으로 연계된 사례도 심장이식 29례, 좌심실보조장치 3례, 폐이식 21례 등 총 53례에 달해 전국 중증 심폐부전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테라노스틱스센터 국제 품질 최고 등급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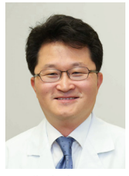
테라노스틱스센터 의료진이 레벨 2 인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테라노스틱스센터가 유럽핵의학회 산하 연구법인(EANM Research Ltd., 이하 EARL)이 운영하는 국제 표준 인증 프로그램에서 국내 최초로 최고 등급인 레벨 2 인증을 획득했다.

EARL 인증은 ▲PET/CT 영상의 정량적 정확도와 재현성 ▲치료센터 운영 체계 ▲환자 안전 관리 ▲임상 수행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테라노스틱스센터는 방사성요오드 치료, 루타테라 치료, 플루빅토 치료 등 다양한 방사성의약품 치료 체계와 이를 연계한 고정밀 PET/CT 분자영상 진단 역량을 인정받았다. 또한 PET/CT 장비에 대해서도 EARL 표준 인증을 획득해 핵의학 영상의 정확도와 치료 평가 표준화 역량을 입증했다.

류진숙 테라노스틱스센터소장은 "이번 인증 획득은 임상 경험과 정밀 영상 기반 치료 시스템,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도 핵의학 진료를 고도화해 아시아 대표 정밀 핵의학 치료기관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궤양성 대장염 면역조절제 중단 시 재발 위험 증가


예병덕 교수

김예지 부교수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중등도 이상의 환자에서는 염증 유발 물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주사 치료제인 항-TNF(항종양괴사인자)제제와 면역조절제를 함께 사용하는 병용요법이 표준치료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면역조절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악성종양과 감염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항-TNF치료 중 면역조절제를 안전하게 중단할 근거가 필요했다.

소화기내과 예병덕 교수, 의학통계학과 김예지 부교수 연구팀이 염증성 장질환 중 크론병은 면역조절제를 중단해도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지만, 궤양성 대장염은 면역조절제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역조절제인 티오퓨린을 복용하던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항-TNF치료를 처음 시작한 환자 6,235명을 면역조절제 투약 중단군과 투약 지속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새로운 스테로이드 사용, 염증성 장질환 관련 입원, 장 수술 등 질병 악화 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는 면역조절제 투약 중단군이 지속군보다 질병 악화 위험이 20% 높았고, 증상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될 위험도 18% 증가했다. 반면 크론병 환자에서는 면역조절제 중단과 질병 악화 위험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예병덕 교수는 "같은 염증성 장질환이라도 면역조절제 중단에 따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향후 환자별 맞춤 치료 전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소화기학회 공식학술지 「임상 위장병학 및 간장학」에 게재됐다.

마음지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마음지기 담당교수)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병원이 2013년부터 임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해온 '마음지기 프로그램'을 7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 운영은 상담 건수 증가와 함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 1분기 마음지기 상담 예약률이 95%에 달하는 등 직원들의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했다.

기존 마음지기 담당교수의 전문상담과 고위험군 관리 체계에 더해, 새로 합류한 임상심리사와의 일반상담과 정서 회복 및 예방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임상심리사는 1차 일반상담과 심리평가를 담당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교수의 전문상담으로 연계한다. 이후 상담 결과에 따라 다양한 직원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박승일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직원들이 보다 편안하게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는 방안을 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번 마음지기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심리사의 1차 일반상담은 동관 6층 직원상담실에서 진행되며 AMIS 3.0 '마음지기 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병원서 연수한 인도네시아 의료진, 첫 로봇 신장이식 성공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교수(오른쪽)가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의 로봇 신장이식 수술을 참관하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 의료 기술을 전수받은 실로암병원 신장이식팀이 인도네시아 최초로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이번 수술로 인도네시아 50대 남성 환자가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병원인 실로암병원은 지금까지 450례 이상의 개복 신장이식을 진행했다. 개복 신장이식에 비해 로봇 신장이식은 최대 10배 넓은 시야 확보와 로봇 기구의 자유로운 관절 운동을 통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절개 범위도 줄일 수 있어 통증이 적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낮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한 실로암병원은 로봇 신장이식 도입을 추진하며 우리 병원에서의 연수를 결정했다.

비뇨의학과 의료진 6명으로 구성된 실로암병원 연수단은 2024년 5월 우리 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다. 우리 병원 신장이식팀은 수술 술기부터 환자 관리 프로토콜까지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하며 연수단을 지도했다. 연수 후 자국으로 돌아간 실로암병원 의료진은 ▲로봇 신장이식 수술 프로그램 ▲혈관 봉합 기술 훈련 ▲복강경 수술 프로그램 ▲간호 역량 표준화 등 다양한 시스템을 현지에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최초로 로봇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 연수단을 지도한 신·췌장이식외과 신성 교수는 "인도네시아 의료진의 첫 로봇 신장이식을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의 선진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시험 계약 전자서명 첫 도입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왼쪽 첫 번째)이 전자서명된 임상연구 계약서를 살펴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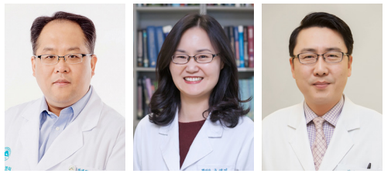
임상시험센터가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글로벌 제약사와의 임상시험 계약에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임상시험 계약은 제약사와 연구자 서명, 내부 결재, 병원장 직인 날인, 계약서 스캔 및 원본 보관, 우편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한 우편 비용과 문서 보관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전자서명 계약 도입으로 계약 체결 기간이 단축되면 연구 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임상시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신약 개발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ESG 경영 실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한 전자서명 시스템은 서명자의 이메일 인증을 통한 신원 확인은 물론 서명 시각, IP 주소, 인증 이력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감사추적 기능을 제공한다. 계약 체결 전 과정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고 위·변조가 불가능해 문서의 무결성과 보안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반준우 임상시험센터소장은 "연구 수행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의뢰기관에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환자들에게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스마트 임상시험의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방광암 항암제 반응 예측 AI 플랫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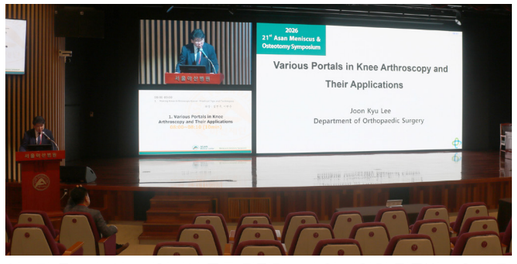
신동명 교수 조영미 교수 홍범식 교수

방광암 중에서도 종양이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이 크고 사망률도 높다. 방광과 주변 조직에 침범한 암을 제거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만 암이 완전히 사라진 병리학적 완전관해를 보이는 환자는 30~40%에 그친다. 처음부터 항암제 저항성을 보이거나 치료 중 내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포유전공학교실 신동명 교수, 병리과 조영미 교수, 비뇨의학과 홍범식 교수팀이 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수술 전 항암치료 효과를 예측하고 항암제 내성 원인까지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다기관 코호트를 포함한 근침윤성 방광암 환자 399명의 전사체 데이터와 디지털 병리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치료 반응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조합(GLS, IL15RA, AFAP1, FOXA1)을 도출했으며, KEAP1-NRF2 신호전달 경로가 항암제 내성의 주요 기전이며 이 경로를 조절하면 항암제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화학 분야 저명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에 최근 게재됐다.

연골판-절골술 심포지엄



연골판-절골술 심포지엄에서 무릎 관절경 수술의 다양한 접근법과 임상 적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병원 정형외과가 주관하는 제21회 연골판-절골술 심포지엄이 7월 5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정형외과 및 관련 분야 의료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판형 연골판 병변의 치료 전략 ▲슬개골 불안정성의 진단과 치료 ▲절골술의 정렬 계획과 수술 기법, 예후 향상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무릎 관절경 수술과 연골판 봉합술의 실전 술기, 개방형·폐쇄형 근위 경골 절골술 등 참석자들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술 기법과 노하우가 공유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소아암 환자 쉼터 이전

소아암 환자 쉼터가 최근 우리 병원 인근 풍납동 동아한가람아파트로 이전했다.

2004년 개소한 소아암 환자 쉼터는 장기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지방 거주 환아와 가족이 병원 가까이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쉼터 보증금은 아산재단이 지원하고, 월 임차료는 불우환자 지원기금으로 총 6억 3,000만 원을 기부한 김해련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쉼터에는 취사시설과 기본 침구류, 생활용품 등이 갖춰져 있어 이용 가족들이 머무는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최대 세 가족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1,000여 명의 환아와 가족이 쉼터에 머물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외과 연수강좌

6월 27일 열린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8회 외과 연수강좌가 6월 27일 동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좌에는 외과 의료진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암 수술, 생체 간이식 기증자 수술, 갑상선암 수술 관련 연구성과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수술의 최신지견 ▲노인 환자의 이해와 치료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가 '나의 간이식 경험' ▲신·췌장이식외과 권현욱 부교수가 'AI 실전에서 제대로 사용하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심포지엄

7월 4일 열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6회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심포지엄이 7월 4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내외 비뇨의학과 의료진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립선암, 신장암, 요로상피암의 최신지견 ▲신장결석 수술, 요도경 수술, 요관 재건술의 임상 적용 ▲배뇨장애 질환 수술의 최적 전략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세포유전공학교실 신동명 교수가 '중간엽 줄기세포를 활용한 배뇨기능 장애 치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이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선두	100,000,000
김원범	50,000,000
에어테크엔지니어링(주)	50,000,000
오윤아	2,000,000
윤태리	5,000,000
이두한	200,000
정태웅	200,000,000
(주)관악	500,000,000
(주)아이디스홀딩스	100,000,000
하나은행	500,000,000
홍성책	50,000,000

불우환자 지원

고병훈	5,000,000
김나미	2,000,000
김은광	500,000
김현의	2,000,000
박지원	150,000
서나함	8,000,000
신현숙	10,000,000
안금순	500,000
안형우	500,000
윤선미	100,000
이상범	150,000
인터오리진아이엔씨	379,100
임채민	1,000,000
(재)삼일미래재단	10,000,000
전형일	100,000
정은주	1,000,000
최혜성	205,748

연구

고난주	10,000,000
김일태	10,000,000
이정내	50,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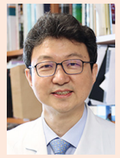
김순희	1,000,000
박동양	1,000,000

- 2026년 6월 30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동정

김성배 교수, 윤재광 조교수 머크암학술상


김성배 교수

윤재광 조교수

종양내과 김성배 교수와 심장혈관흉부외과 윤재광 조교수가 최근 열린 제52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머크암학술상을 받았다. 이 상은 대한암학회가 암 연구와 학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에 게재된 우수 논문을 선정해 수여한다. 김성배 교수는 '두경부 편평상피세포암에서 PIK3CA 변이 위치별 알펠리십 치료 효과: KCSG HN 15-16 TRIUMPH 연구 분석'을 주제로, 윤재광 조교수는 '스테이션 기준 다발성 N2 비소세포폐암에서 단일 구역과 다구역 N2 전이의 예후적 차이'를 주제로 각각 이 상을 받았다.

사호석 교수 중국 대련 제3인민병원 특임전문가 위촉

안과 사호석 교수가 최근 중국 대련시에 위치한 제3인민병원의 특임전문가로 위촉됐다. 사 교수는 제3인민병원과 대련 안과병원으로부터 안성형 및 안와질환 분야의 임상 경험과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2028년까지 3년간 초빙 전문가로 활동한다. 한편 사 교수는 지난해 6월 대련의대와 제2부속병원의 초빙교수로도 위촉된 바 있다.

김효원 교수 일본 폴리아상

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최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22회 일본정신신경학회 학술대회에서 폴리아상(Folia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최근 1년간 학회 공식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학술적 완성도, 연구의 독창성과 임상적·학문적 영향력이 가장 뛰어난 연구에 수여된다. 김 교수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스피라젠과 위약의 비교: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논문을 통해 스피라젠의 안전성과 사회적 의사소통 결핍 개선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비일본인 연구자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미 차장 최우수상

약제팀 박근미 차장이 6월 20일 열린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우수연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 차장은 '메로페넴주와 정맥영양제 및 지질유제의 Y-site 배합적합성 평가'를 주제로 이 상을 받았다.

김기훈 교수 최우수비디오발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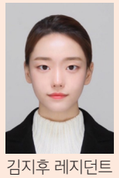
간이식·간담도외과 김기훈 교수가 6월 17일부터 3일간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세계복강경간학회(ILLS) 싱글토픽 심포지엄에서 최우수비디오발표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우리 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에서 연수받은 포르투갈 쿠리 카브랄 병원의 주앙 페드루 반도바스 전문의(사진 왼쪽)와 함께 '순수 복강경 간기증자의 간 우후구역 절제술'을 주제로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장희윤 레지던트 젊은의학자 논문상

마취통증의학과 장희윤 레지던트가 6월 28일 열린 제24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젊은의학자 논문상을 받았다. 장 레지던트는 「유럽마취과학회지」에 게재한 '전신마취 하 코수술 환자에서 세보플루란을 이용한 흡입마취와 레미마졸람을 이용한 정맥마취에 따른 각성기 흥분 발생에 대한 비교'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전공의 문학상 공모전 입상

김보규 레지던트


김지후 레지던트

김유진 인턴

내과 김보규 레지던트, 영상의학과 김지후 레지던트, 교육수련실 김유진 인턴이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관한 전공의 문학상 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김보규 레지던트는 수필 「오늘 밥은 잘 드셨어요?」, 김지후 레지던트는 시 「판독문에 쓰지 못한 말」, 김유진 인턴은 수필 「인생 첫 주치의」를 출품해 이 상을 받았다.

인사

보직임명

신·췌장이식외과	부교수	권현욱	임 : 연구기획관리부실장
심장내과	부교수	조민수	임 : 디지털심장병원추진단장
			- 2026. 6. 1부.
산부인과	부교수	이미영	임 : 어린이병원 태아심장센터소장
			- 2026. 7. 1부.
법무팀	차장	이창민	임 : AI혁신지원팀장
			- 2026. 7. 15부.

견고한 시스템 위에 더해지는 가치

김태용
AGS실장

여름비가 짙은 녹음을 더해가는 계절이다. 쏟아지는 비를 견디며 나무가 단단함을 더해가듯 병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들의 노력 위에서 더 단단해진다. 지금 이 순간도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병원은 9월 15일부터 4일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5주기 의료기관인증 평가'를 진행한다. 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도입되고 환자의 중증도와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법적·제도적 기준은 더 세분화되고 있다. 그만큼 현장에서 의료진이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인증 평가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인증은 단순히 외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의례적인 시험이 아니다. 바쁜 진료 현장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외부의 눈으로 우리 병원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하고 다듬어 온 AGS가 있다. 인증 평가 기준 대부분은 이미 AGS에 깊이 내재화되어 있으며, AGS실의 상시평가 결과에서도 우리 병원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인증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다만 마취 유도 전 확인(Sign in)과 타임아웃 절차나 필요시 처방 절차, 의무기록 작성 충실도, 환자 상태 변화 시 보고 체계 등 일부 항목은 본 평가 전까지 마지막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인증 준비 기간에는 심평원의 환자경험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직원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의료기관인증과 환자경험평가는 결국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인증 평가가 규정과 절차를 통해 환자안전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면, 환자경험평가는 그 기반 위에서 환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환자 중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자 중심성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반대로 환자에 대한 따뜻한 공감과 배려가 없는 안전은 차가운 규칙으로만 느껴질 수 있다.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성은 서로 다른 목표가 아닌 우리 병원이 추구하는 의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보완하며 함께 갖춰야 할 두 축이다. 직원 모두가 이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환자안전은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서는 지켜지기 어렵다. 병원 전체가 같은 기준을 공유하고 일관된 절차와 안전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현재 AGS 상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부서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 우리 병원 직원들의 성실함과 열정, 환자안전에 대한 성숙한 의식은 국내외 어느 의료기관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일상의 업무 속에서 AGS를 묵묵히 실천해 온 직원들이 이번 인증 평가에서도 우리 병원의 수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그리고 환자 중심의 가치를 함께 완성해 가는 이번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AGS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최선의 결과 위한 집요한 고민

간담도췌외과 홍광표 부교수 간담도 분야는 수술실에서 수많은 변수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된다. 그만큼 의사의 판단에 무게가 실린다. 홍광표 부교수는 빠른 회복을 위해 상황에 맞는 치료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수술실에 들어선다.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경험과 실력을 쌓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성향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압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치료 계획

"학생 때 수술을 참관하는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홍광표 부교수는 생명과 직결된 수술 분야에 매력을 느끼면서 중증도가 높고 역동적인 치료 과정을 거치는 간담도췌외과로 진로를 정했다. 그러나 트레이닝을 마치고 담당 환자를 맡게 됐을 때 꿈을 이룬 기쁨보다 엄청난 부담감이 먼저 기다렸다. "수술 중에도 치료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암의 위치와 절제 범위, 간 기능, 기저 질환 등에 따라 수술 전략이 매번 달라지고 정해진 치료 틀을 벗어나기 일쑤죠. 때로는 절제를 포기하고 수술을 마쳐야 하는 순간도 찾아와요. 어떻게든 해보려는 치료 시도가 오히려 제어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초창기엔 비교적 간단한 수술까지 스트레스와 두근거림이 찾아오더라고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머물며 자괴감에 빠지기 쉬웠다. 그는 수술 전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노력부터 하기 시작했다. 환자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살펴 플랜 A, B, C를 세웠다. 그리고 동료 의사나 집담회를 통해 환자 사례를 상의하며 치료 계획을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했다. 대량 간절제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는 좋겠지만 잔존 간 기능이 낮아져 환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재발하면 다음 치료를 도모할 기회까지 박탈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모두 수렴한 치료 계획을 세운 뒤에 그는 수술실로 향한다.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간담도췌외과 의사로서 넘어야 할 숙명이고 그 중압감을 견뎌야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진심으로 채우는 소통

그는 환자들이 준비해 온 질문을 모두 듣고 성심성의껏 답한다. 그러다 보면 오전 진료가 점심시간을 훌쩍 넘겨 다른 진료실로 옮겨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사를 만나는 일이 환자들에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최대한 환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만족시킬 순 없어요. 보다 명확한 의견을 원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어려워 에둘러 말하다 보면 환자분께 헛된 희망을 드리는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는 더 나은 전달 방법을 찾고자 했다. "내 진심이 뭘까,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도움이 될까 혼자서 많이 정리해 봤어요."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에게 아직 식사와 거동이 잘 되는 지금,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것을 조언한다. 삶이 무너지기 전에 호스피스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자는 내용은 환자와 가족에게 그의 진심과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었다. "다행히 수술하면서 생긴 저와 환자, 환자 가족 사이의 유대감이 있기에 제 이야기가 보다 힘있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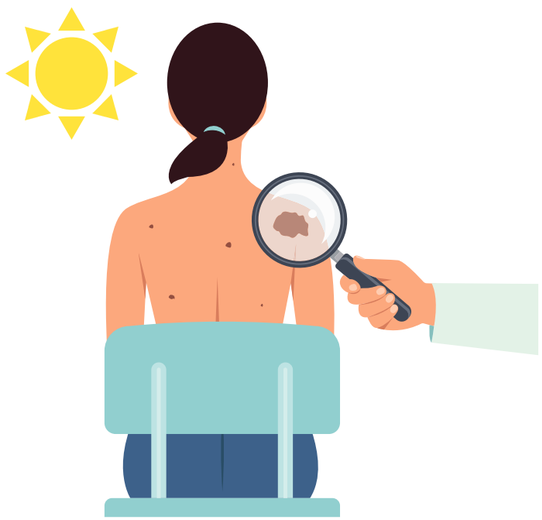
작은 차이로 증명하는 자부심

그는 간절제술에서 복강경이나 로봇미세침습수술의 비중을 넓혀가고 있다.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해 회복이 빠른 미세침습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환자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술실 밖에선 한층 발전된 치료를 위한 연구가 이어진다. 오른쪽 상부 간은 복강경으로 절제하기 힘든 부위로 꼽히는데, 다양한 치료 사례를 모은 발표로 지난해 세계복강경간학회에서 우수 비디오발표상을 수상했다. 또 융합의학과와 함께 수술 전 임파선 전이 유무를 예측해 절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온 건 최고의 수술을 받고 싶은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그걸 충족시켜 드리기 위한 고민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따르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수순이라 믿는다. "수술 후 CT 결과에서 환자도 알 수 없는 작은 차이지만 우리 병원에 기대한 수준의 수술을 펼쳤다는 만족감이 들 때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유쾌한 분위기를 이끄는 그의 내면에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농축돼 있다. "혹여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외부 요인을 탓하거나 결과에 둔감해지고 싶지 않아요. 경험이 쌓일수록 더 많이 듣고 스스로 개선하며 성장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자외선과 점 그리고 피부암



피부과 이우진 부교수

매일 마주하는 햇빛과 평생 함께해 온 내 몸의 점. 둘 다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기 쉽다. 하지만 자외선과 점은 피부암이라는 주제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된다. 자외선은 점을 비롯한 피부 병변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그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피부암 조기 발견의 출발점이다.

자외선, 피부에 누적되는 손상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UVA와 UVB로 나뉘며 둘 다 지표면까지 도달해 피부에 영향을 준다. UVB는 단시간에 피부를 붉게 만드는 일광화상의 주범이고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을 손상시키며 노화와 색소침착을 유발한다. 흐린 날이나 실내 창가에서도 UVA는 상당 부분 투과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지 않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외선 노출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면 피부세포의 DNA 손상이 쌓인다. 이는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같은 비흑색종 피부암은 물론 악성흑색종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자외선 차단은 단순한 미용 관리가 아니라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이다.

자외선이 점을 변화시킨다

평소 가지고 있던 점도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등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대부분의 변화는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흑색종으로 진행되는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은 피부 노화 예방뿐 아니라 기존 점들이 불필요하게 자극받아 변화하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위험한 점을 가려내는 ABCDE 법칙

내 몸에 있는 점이 안전한지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으로 ABCDE 법칙이 널리 활용된다.

A (Asymmetry, 비대칭성): 점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양쪽 모양이 다르다.

B (Border, 경계): 경계가 흐릿하거나 들쭉날쭉하다.

C (Color, 색깔): 한 점 안에 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등 여러 색이 섞여 있다.

D (Diameter, 크기): 지름이 6mm(연필 끝 지우개 크기) 이상이다.

E (Evolving, 변화): 최근 몇 달 사이 크기, 모양, 색깔이 변하고 가려움, 출혈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E' 변화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오래전부터 있던 점이라도 최근 들어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알고 쓰자

자외선 차단제의 SPF는 UVB 차단 정도를, PA 지수는 UVA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 일상생활에는 SPF 30, PA++ 이상이면 충분하고 야외활동 시에는 SPF 50, PA+++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지수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 방법이다. 충분한 양을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땀을 흘리거나 야외활동이 길어질 경우 2~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다. 한 번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자외선과 점에 대한 흔한 오해들

자외선과 점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내용도 많다. 실내에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UVA는 실내에서도 누적될 수 있어 창가에서 근무하거나 통근 시간이 길다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점을 빼면 그 자리에 암이 생긴다는 속설도 사실이 아니다. 다만 미용 목적으로 점을 제거하면 조직검사를 못해 악성 변화를 놓칠 수 있다. 모양이 의심스러운 점은 외과적 절제 후 조직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손바닥이나 발바닥은 햇빛을 잘 받지 않으니 점이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동양인은 손·발바닥이나 손·발톱 밑에 생기는 말단흑색종의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작은 습관이 피부를 지킨다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도 정작 실천이나 자가 점검에는 소홀하기 쉽다. 출근 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잠깐 밖에 나갈 때도 모자 등을 활용해 자외선 노출을 줄여야 한다. 한 달에 한 번은 거울 앞에서 전신의 점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새로 생긴 점이나 변화가 의심되는 점은 사진으로 기록해 두면 변화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자외선 차단과 점 자가 점검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위험 요인을 줄이는 일이고, 점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은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일이다. 두 가지 모두 거창한 노력 없이 일상 속 작은 습관만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의심되는 변화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다.

기내 닥터콜, 망설임을 이긴 '한 걸음'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서 의료진을 찾는 닥터콜이 울렸다. 마침 탑승하고 있던 안과 이훈 부교수는 착륙 때까지 환자 곁을 지켰다. 기내라는 낯선 환경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한 이훈 부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실>

당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달라

미국 해외 연수 중 국내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 잠시 귀국했다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에서 의료진을 찾는 다급한 방송이 나왔다. 순간 '내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안과 전문의다 보니 망설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에 몸이 자연스레 움직였다. 승무원에게 서울아산병원 의사임을 밝히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다가가니 외국인 환자가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증상을 들으며 망막혈관폐쇄 가능성을 떠올렸다. 기내에서 할 수 있는 처치가 많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편히 있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 혈압을 측정했다. 예상대로 혈압이 높았다. 혈압이 높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차분히 설명하며 환자의 불안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다. 착륙 때까지 환자 곁을 지키며 상태를 살폈고 도착할 무렵 다행히 환자의 혈압은 점차 안정됐다.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병원에는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판단을 함께 나눌 동료가 있지만, 기내에는 처치할 의료 장비는 물론 의견을 나눌 동료가 없어 혼자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어디에서든 의료인의 역할은 같다는 생각이 버팀목이 됐다. 눈앞의 환자를 돕는 것에 집중했다.

이번 경험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대단한 처치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환자가 가장 불안한 순간,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 느꼈다. 환자가 건넨 짧은 감사 인사가 지금도 선명하다. 의료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사실이 책임감이자 자부심으로 남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의료진에게 일종의 의무이자 본능에 가깝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이면 두렵고 망설이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책임 소재에 대한 걱정, 제한된 환경에서 처치해야 하는 부담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찾아온다.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의 망설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 기꺼이 나설 수 있었던 건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며 마주한 수많은 동료들의 책임 의식 덕분이었던 것 같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시간들이 스스로 한 걸음 나서는 데 가장 큰 힘이 됐다.

정밀함을 더하다:

영상·병리진단과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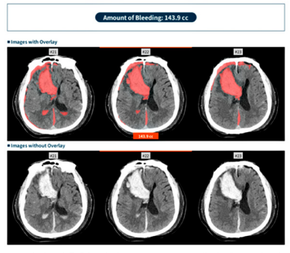
영상의학과 최양신 조교수 · 병리과 송인혜 부교수

판독 시간은 줄고 정확도는 높아지고

영상의학은 최신 AI 기술의 임상 적용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고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이미 5년여 전부터 흉부 엑스레이, 유방촬영술(Mammography) 등 비교적 표준화된 영상 검사에서 병변 발견을 보조하는 AI가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CT와 MR처럼 보다 복잡한 영상 검사에서도 병변을 확인하고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를 판독할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AI는 판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종양이 뇌로 전이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판독의가 확인해야 하는 뇌 MR 영상 수는 수백 장에 이릅니다. AI를 활용하면 병변의 유무뿐 아니라 이전 MRI와 비교한 병변의 변화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이 2020년 뇌 MR 판독에 AI를 도입한 이후 건당 판독 소요 시간이 66.9초에서 57.3초로 약 14.3% 감소했습니다. 판독의가 집중력을 유지하고 체감 피로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I는 진단 보조에 그치지 않고 MR 영상의 질을 개선하고 검사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검사실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여 불안감과 불편감을 낮추는 한편,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어 검사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수가 보완 등 정책적 과제가 남았지만, AI를 도입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 검사 및 진단 환경이 만들어지고 곧 환자 진료 과정 전반의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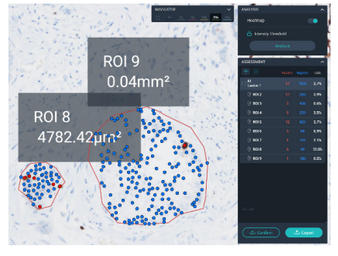


AI 기반 뇌출혈 진단 보조 프로그램의 응급실 뇌 CT 활용 사례

수천 개의 세포도 5초 만에… 병리진단의 효율화

병리 영역에서도 AI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그 결과 종양 발견과 분류, 분자병리학적 유형 추측, 예후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2021년 3월부터 세포 증식 표지자인 Ki-67 면역화학염색 판독에 AI를 전격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Ki-67 검사는 세포의 증식 속도를 평가해 종양의 진단과 악성도를 판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존에는 판독을 위해 수백 개의 세포를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 양성 세포의 비율을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됐고, 육안 판독의 특성상 정확성과 재현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도입 이후에는 수천 개의 세포를 대상으로 양성 비율을 빠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산된 수치도 역시 AMIS 3.0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기존에 10분가량 소요되던 작업이 5초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의료 AI 기술은 이제 개별 영상이나 단편적인 텍스트 분석을 넘어 유전체 데이터와 누적 진료 기록, 검사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중증질환 치료 역량이 축적된 EHR과 PACS,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병리 시스템과 진단 빅데이터는 AI 기술을 임상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고도화된 기술의 융합을 통해 환자 중심의 정밀의료를 선도해 나갈 우리 병원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AI 기반 Ki-67 병리 판독 보조 프로그램의 활용 사례

※ 'AI 현장 리포트' 코너에서는 의료 AI의 발전 흐름과 트렌드, 우리 병원만의 의료 AI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방사선종양팀
홍승연 사원입니다

"아직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는 단계지만 환자에게 신뢰를, 동료에게는 믿음을 주는 방사선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서울아산병원은 어떤가요? 방사선학을 공부하며 실력 있는 선배님들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하는 것을 보며 저 역시 같은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입사 후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쉼 없이 오가면서도 부서 간 협업 체계와 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 '아, 역시 서울아산병원이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암 환자의 자세를 계획된 위치에 맞게 재현한 뒤, 영상 유도 장비로 해부학적 위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방사선이 정확한 부위에 조사되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mm 단위의 미세한 오차까지 보정하려면 집중력과 세심함, 그리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력이 요구돼요. 전 과정에서 교수님과 방사선사, 간호사, 의학물리실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어지고요. 다소 급한 성격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많지만, 정확성과 안전을 가장 우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효능감을 느끼곤 하나요? 호흡 연동 방사선치료법 중에 환자분이 15~20초 숨을 참은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가 시행되는 치료가 있어요. 처음에 이를 어려워하던 환자분들이 반복 교육과 연습 끝에 능숙하게 해내면 기분이 좋아요. 환자분의 노력 덕분에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졌으니 치료 후 격려해 드리며 성취감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방사선치료는 짧게는 3~5회, 길게는 30회 이상 시행되어 치료 일정 관리가 어려워요. 매일 꽉 차 있는 예약 일정에서 시간을 들여 한 분 한 분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면 "항상 편하게 치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듣기도 해요. 어쩐지 뿌듯하죠.

수많은 환자를 만날 텐데 유독 특별했던 환자가 있나요? 약 30회의 방사선치료를 마치고 수개월 뒤에 추적관찰을 위해 내원한 환자분이 저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찾아오셨어요. 당시 다른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러 치료실을 다 둘러보셨대요. 휠체어를 타고 치료 받던 때와 달리 저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덕분에 많이 회복됐다며 손도 잡아 주셨어요.

병원에서 소확행을 느낀 순간도 소개해 주세요. 지난가을 한마음 축제에서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부서 선생님들의 아이들과 하루 종일 뛰놀았던 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개최되었으면 해요.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땀 한 땀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

영상의학팀 박수현 주임

미싱과 뜨개를 시작한 계기는

육아휴직 중 아기를 위한 머리띠와 보넷을 사고 싶었지만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소품부터 만들기 시작해 아기 모자를 완성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후에는 민소매와 뷔스티에 같은 의류에도 도전했습니다. 옷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싱에도 관심이 생겼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고쟁이와 에코백 같은 생활 소품을 만들며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미싱과 뜨개의 매력은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실과 원단이 하나의 결과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크고, 기성품에서는 아쉬웠던 디자인이나 길이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접 만든 작품을 선물할 때 마음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나만의 꿀팁은

처음에는 작은 소품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씩 완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뜨개는 다이소 제품이나 DIY 키트를 활용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싱은 초기 비용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저렴한 재봉틀은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이 업무에 주는 긍정적 영향은

뜨개와 미싱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반복적인 작업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업무로 지친 날에도 손끝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고,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도 일상에 긍정적인 힘이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이에게 직접 만든 옷과 모자를 처음 입혀봤던 순간입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만든 작품을 아이가 입은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고 주변에서 "직접 만든 거냐", "금손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뿌듯했습니다.

※ '나의 취미생활'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코너를 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

저희 아버지는 항암치료와 PET/CT 검사를 위해 매번 새벽부터 어머니와 함께 지방에서 서울까지 먼 길을 올라오십니다. 특히 당뇨가 심해 혈당 조절 문제로 검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 시간 조율에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장원 선생님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아버지는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어 치료만큼이나 환자의 상황에 공감하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분주한 의료 현장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기에 선생님의 응대가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박장원 선생님 같은 직원이 있기에 서울아산병원이 국내 최고이자 세계적인 병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많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검사를 앞둔 환자분들이 혈당 관리 등 여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저희 부서 의료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새벽부터 길을 나서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오십니다. 여러 차례 수치를 함께 조절하며 상담을 이어가다 보면 환자 한 분 한 분의 얼굴과 사연이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을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늘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작은 위로와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핵의학팀 박장원 대리**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근 기행

내과 김보규 레지던트

기숙사 정문을 나서면 병원까지는 채 오 분도 걸리지 않는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두 개만 건너면 어느새 병원 정문 앞이다. 가까운 거리 덕분에 출근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일과를 마친 뒤에도 환자 상태가 마음에 걸리는 날이면 다시 병원으로 발걸음이 향하곤 했다. 그렇게 병원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었다.

전공의의 하루는 이른 아침에 시작해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끝난다. 주말에도 번갈아 병원을 지켜야 하고, 당직이 있는 날이면 병원의 불빛 아래에서 밤을 꼬박 보내기도 한다. 쉬는 날에도 메신저 알림은 조용히 울린다.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은 다시 병원으로 향한다. 출근은 하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끔은 일이 유난히 고되고 마음까지 지칠 때가 있다. 위중한 환자 곁에서 진땀을 흘리고 어떻게 해도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면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건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료들 덕분이다. 나는 아침잠이 많아 늘 시간에 쫓기듯 출근하지만 어떤 동료는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병동 일을 정리하고, 또 어떤 동료는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환자 상태를 살핀다. 어느새 가족처럼 익숙해진 우리 동기들. 대단한 위로는 아니더라도 "오늘 정말 힘들었다"라는 한마디를 주고받으면 그것으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한다.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들이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에서 병원까지는 오 분 남짓. 오늘도 그 짧은 길을 걸어 출근한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암병원간호팀 천애림 주임

'웰컴 투 AMC' 코너 속 바쁜 일상에도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는 해외의학자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동료들과 소소한 행복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임상연구보호센터 유은옥 대리

'다른 그림 찾기' 코너를 통해 약 7개월 간 기다렸던 주차동 증축 공사가 드디어 완료됐다는 소식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중환자간호팀 한미숙 사원

'감사우체통 - 잘 먹는 힘을 키웠습니다'가 마음에 남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던 환자분께 식단 관리 방법을 친절히 알려주신 영양팀 이연미 선생님처럼 환자분들께 꼭 필요한 직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장병원간호팀 신영주 사원

'AMC루키' 코너는 신입선생님들의 다짐과 경험을 들을 수 있어 매번 챙겨 읽습니다. 이번 호를 읽으며 입사 당시의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려봤습니다!

건진운영팀 이유리 대리

'매일출근기행'에 육아 휴직 후 복직한 마음이 자세히 담긴 사연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곧 복직하는 후배에게 보여주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